

# 한파위기가구에 최대 100만원 지원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한 한파위기가구 지원에 나섰다.

3일 시에 따르면 겨울철 한랭질환 환자는 2013년 258명에서 2017년 631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도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랭질환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8명이 사망했다.

이에 시는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등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겨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날 수

**서울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금 150% 편성  
쪽방촌·비닐하우스 등 주거취약 지역 대상  
고시원·여관 등 1인 가구 밀집지역도 포함**

있도록 서울형 긴급복지로 위기가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한 제도다.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법적·제

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긴급한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돕는다.

중점 발굴 대상은 쪽방촌, 달동네, 옥탑방, 임대아파트, 연탄사용

동네, 비닐하우스 등 주거취약 지역 등이다. 여기에 고시원, 원룸텔, 여관, 찜질방 등 1인 가구 밀집지역도 포함됐다.

시는 우선 일용직 근로자 등 한파로 인한 실직, 휴·폐업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생계비를 최대 100만 원 지원한다. 전기매트, 동계이불, 찜질방 등 방한용품의 현물지원도 할 예정이다.

저체온증·동상 등 한랭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는 각종 검사·치료비, 약제비 등 긴급 의료비를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랭질환으로 실직, 폐업에 처한 경우 의료비·생계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수도배관·계량기 및 보일러 등 파손 등 주거비 명목으로 최대 100만 원의 집수리 지원도 가능하다.

시는 동절기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 자치구 지원금을 평월 대비 150% 편성했다. 대상자나 일반 시민이 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현수막, 옥외전광판, 마을버스 전광판, 지하철 등 시민접점 홍보도 강화했다.

황지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겨울철 한파에 고통 받는 취약 계층이 빠짐없이 발굴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들을 총 동원하겠다"며 "시민들은 주위에 한파로 고통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120)로 적극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 작년 11월 서울소비경기지수 5.7% 상승...백화점 등 주도

명절 등 계절요인 없는 달 중 가장 큰 오름폭

지난해 11월 서울소비경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등 계절요인 없는 달 중에는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서울 소비경기지수를 분석해 3일 이 같이 밝혔다.

업종별 지수는 소매업의 경우 종합소매, 가전제품·정보통신, 무점포 소매 등이 호조를 보이며 8.8% 증가했다. 종합소매업은 전 달에 이어 높은 오름폭(6.0%)을 보였다. 가전제품·정보통신(7.0%)과 특히 무점포소매(33.5%)업이 큰 폭의 오름세를 이어갔다.

종합소매업과 무점포소매의 증가세는 각각 백화점과 인터넷 쇼핑의 소비 증가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은 의복·섬유·신발, 음식료품·담배, 연료를 제외한 산업 전반에서 증가를 보였다. 숙박업은 전년 동월 대비

9.6% 상승했지만 주점·카페전문점업이 5.2%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은 1.3% 증가에 그쳤다.

권역별 소비경기지수는 서북권을 제외한 서울 전역에서 증가를 보였다. 도심권, 서남권, 동남권, 동북권 순으로 호조를 보였다. 도심권의 소비경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7.8% 증가하며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동남권의 소비경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4% 상승해 경기호조를 이어갔다. 동북권의 소비경기지수는 0.8% 증가했다. 서남권의 소비경기지수는 전 달에 비해 오름폭은 둔화됐지만 양호한 증가세(6.7%) 증가를 유지했다. 서북권의 소비경기지수는 권역 중 유일하게 감소로 전 달(5.6%)였다.

서울연구원 조달호 박사는 "서울 소비경기지수가 계절요인 없이도 5.7%의 높은 오름폭을 보였다"며 "백화점과 인터넷쇼핑 소비 증가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스노우버스터에서 직원들이 돼지와 복이 쓰인 보드와 깃발을 들고 썰매를 타고 내려오고 있다. 에버랜드 스노우버스터는 이번 시즌 국내 최초 4인승 썰매를 익스프레스 코스에 전면 도입하고 자동출발대, 에어쿠션, 튜브 리프트 등을 설치했다.

뉴시스

## 서울 매입형유치원 공모에 51개 사립유치원 신청

단설유치원 없는 자치구 중심 10개원 선정 계획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매입형유치원에 사립유치원 51곳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2019년도 매입형유치원 공모 신청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매입형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립유치원 취원을 40% 달성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매입형유치원을 도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전국최초 공모를 통한 매입형유치원 1개원을 선정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카소유 ▲단독건물 ▲6학급 이상 설립·운영 등의 자격요건을 정해 지난해 12월 12~28일 공모를 받았고 51곳이 신청했다.

51곳의 사립유치원은 서울시교육청 매입형유치원 선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포함한 심사를 거쳐 매입형유치원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단설유치원이 없는 자치구와 취학수요 대비 공립유치원이 부족한 지역, 서민거주 밀집지역 등을 우선 선정 기준으로 정하고 10개원 내외의 유치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단설유치원이 없는 자치구는 영등포구, 도봉구, 종로구, 용산구, 마포구, 광진구, 강북구 등이다. 매입형유치원은 감정평가에 따라 산정되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2개 업체를 추천 받아 진행된다.

단 51개 사립유치원 중에서도 최근 2년간 감사결과에서 경고 이상 행정처분이 있거나 법령에서 정한 각종 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유치원, 지도·점검 지적 사항이 있는 유치원 등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선정결과는 심사를 거쳐 오는 2월 통보될 예정이며 행정절차와 사립유치원 폐원, 공립유치원 설립 절차 등을 거쳐 오는 9월 개원할 예정이다.

뉴시스

## 경기도 "중대 재해 업체, 발주 공사서 제외한다"

경기도 건설본부는 이달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하거나 특허·신기술을 적용하는 건설본부 발주 공사에서 2차례 이상 중대 재해가 발생한 업체를 제외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인다고 3일 밝혔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산업재해 가운데 정도가 심한 것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부상자나 작업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건설본부는 이를 위해 특허·신기술이 필요한 공정의 기술보유 업체 선정이나 1인 견적 수의계약에 앞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등을 통해 2015년 이후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인지 먼저 확인한다.

뉴시스

## 서울시 올 도시공원 토지보상 예산 1조 육박

서울시가 오는 2020년 7월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올 올해 도시공원 편입 토지보상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약 1조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도시공원 편입 토지보상 예산은 9600억원이 예정됐다. 서울시는 이중 86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공인별 배정예산은 자치구와 최종 협의를 거쳐 이달 하순경 확정할 예정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정부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사용하겠다

고 정해놓고도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곳을 말한다.

지존측에 따르면 2017년말 기준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70개소로 면적은 39.8km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도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적다. 이에대한 토지보상비 소요액은 실보상이 기준으로 약 12조90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2020년 일몰이후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점에서 사업 집행률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